

보도시점 2026.10.13.(화) 06:00
< 10.13.(화) 석간 >

배포 2026.10.12.(월)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새만금 협력은 활발하게... 한중 통상당국, 공급망·산단 실무회의 개최

- 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제6차 한중 산단 실무회의 개최
- 주요 품목의 원활한 도입과 예측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소통 공감대
-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중 산단 간 협력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10월 13일(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서 배준형 통상협력국장과 왕리핑(Wang Liping)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제4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와 ‘제6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한중 교역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이하 한중 산단)를 활용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6.1~8월 한중 교역액은 2,631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51.3% 증가하였으며, 우리의 대중 수출액도 1,177억불(전년동기 대비 42.7% 증가)로 확대

< 제4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 간 협의체로, 2023년 첫 회의(12.18, 서울) 이후 매년 정례 개최되고 있다. 그간 양측은 동 채널을 통해 수출통제 품목뿐 아니라 요소, 와이어링 하네스 등 산업 생산에 필요한 주요 품목 전반의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며 양국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측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주요 품목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도 협의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핫라인’을 양국 공급망 협력의 상시 채널로 주요 품목의 공급망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현안 발생시 신속히 협의하는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6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

*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지정('15.10)한 산업협력 거점으로 우리측은 새만금, 중측은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가 지정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11.1, 경주)과 올해 1월 양국 정상 임석 하 체결된 「한중 산단 협력 강화 MOU(1.5)」를 계기로 새만금 투자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기업 20여개사로 구성된 투자 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해 투자환경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기업의 실제 진출 및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 산단의 투자여건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양측은 새만금과 후이저우 산단의 지원제도와 인센티브를 공유하고, 상대국 산단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 산단 간 물류 인프라 접근성 제고와 투자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산단 간 기업 진출과 무역·투자 확대를 보다 원활하게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측의 투자조사단 추가 파견 등을 논의하여 새로운 투자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새만금을 비롯한 한중 산단을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무역·투자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배준형 통상협력국장은 “한중 공급망은 우리 기업의 생산과 수출에 직결되는 만큼 평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망 현안은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소통해나가는 한편,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산단 협력도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중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5694)
		담당자	사무관	안호연 (044-203-5677)